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의 관계: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전 원 희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공감은 대상자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이입하여 그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서 간호사와 대상자 간에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며, 간호의 질을 높여 대상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이러한 점에서 공감역량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어 임상현장은 환자를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1]. 이에 최근 미래 간호전문직 종사자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조사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3,4].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감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간호전문 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교육과정에서 공감역량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능력은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속성을 갖는 ‘empathy’의 개념으로 측정된 연구가 많았다[3-7].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 ‘compassion’의 개념이 간호실무에서 공감역량을 평가하는데 보다 적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 따라서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ompassion’ 개념의 공감역량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5,6].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임상실습은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이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간호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배우는 교육과정이다[8].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높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이들이 공감과 같은 간호 전문직 역량을 발휘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0]. 비록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Jeong과 Lee [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중 타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개인적 고통을 느끼는 ‘개인적 고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Hwang [7]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Kim과 Yi [4]의 연구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포함되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공감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에서 이들 변인 간의 관계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이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공감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어 : 공감, 역량, 실습, 전문직관, 간호대학생

1)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jwh9178@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3-0804-3120)

투고일: 2020년 6월 6일 수정일: 2020년 6월 30일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18일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간호전문직관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수행과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한 표준지침과 방향이 되므로[11]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가치기준을 세우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감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공감역량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으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0] 전문직 정체성과 공감심천수준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Park과 Oh [1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관련 연구들은 예측변수로서 공감의 역할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고[5,6,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역량과 관련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자기인식, 임상실습 유무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3,4], 이들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역할을 조사하여 임상실습교육에서 이들의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 공감역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조사하는 상관성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D시와 P시에 소재한 3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2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9개(일반적 특성 7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1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대상자는 산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연구 도구

●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va [14]가 개발하고 Kim과 Lee [15]가 수정·보완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실습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실습교육환경 .75,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78, 실습업무부담 .70, 대인관계갈등 .70, 환자와의 갈등 .73이었다.

●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on, Kwon과 Ahn [16]이 개발하고 Han, Kim과 Yun [17]이 수정·보완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다[18-20]. 본 도구는 총 18문항이며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전문직 자아개념 .80, 사회적 인식 .81, 간호의 전문성 .75, 간호계의 역할 .75, 간호의 독자성 .73이었다.

● 공감역량

공감역량은 Lee와 Seomun [2]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공감역량 척도(Compassion Competence Scale, CCS)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17문항으로 소통성, 민감성, 통찰력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Seomun [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값은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소통성 .83, 민감성 .78, 통찰력 .75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D시와 P시에 소재한 3개 4년제 대학에서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책임자는 학과장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승인받은 후 본 연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강의실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학생들과 이해관계가 없고 자료수집에 대해 훈련받은 연구보조원이 서면 동의를 배부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보조원에 의해 일괄 수거되었다. 총 1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설문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하고 총 12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40525-201905-HR-060-02)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연구 책임자는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의 익명성, 비밀보장, 자발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를 위한 서면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대상자에 한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자의 케비넷에 잠금장치 한 후 3년간 보관되고 이후 문서 파쇄기를 사용하여 폐기된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척도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analysis를 실시하였고 모든 도구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p>.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 공감역량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실습기관 유형과 전공만족도는 그룹 내 빈도수가 적어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21]가 제시한 세 단계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여학생 97명(80.8%), 남학생 23명(19.2%)이었다. 학년은 3학년 66명(55.0%), 4학년 54명(45.0%)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81명(67.5%)으로 많았다. 임상실습기간은 18주 이상이 66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기관은 본인 소속의 대학병원이 대부분이었다(110명, 91.6%).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72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9명(32.5%), 불만족 9명(7.5%) 순이었으며,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적성이 45명(37.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 공감역량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97 ± 0.47 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실습업무부담이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실습교육환경 3.39점,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 2.98점, 대인관계 갈등 2.56점, 환자와의 갈등 2.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80 ± 0.47 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점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4.08점, 사회적 인식 3.06점, 간호의 전문성 4.34점, 간호실무 역할 3.77점, 간호의 독자성 3.75점이었다. 대상자의 공감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3.87 ± 0.37 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점수는 소통성 3.88점, 민감성 4.17점, 통찰력 3.57점이었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공감역량 점수는 학년($t=3.55$, $p<.001$)과 전공만족도($F=11.44$,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았다(Table 3).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과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역량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34$, $p<.001$), 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5$, $p<.001$) (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Gender | Male | 23 (19.2) |
| | Female | 97 (80.8) |
| Grade | 3 | 66 (55.0) |
| | 4 | 54 (45.0) |
| Religion | Yes | 39 (32.5) |
| | No | 81 (67.5) |
|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 | 6~11 | 48 (40.0) |
| | 12~17 | 6 (5.0) |
| | ≥18 | 66 (55.0) |
| Type of practice hospital | University hospital under one's | 110 (91.6) |
| | University hospital belonging to another university | 2 (1.7) |
| | General hospital | 8 (6.7) |
|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 Satisfied | 72 (60.0) |
| | Moderately satisfied | 39 (32.5) |
| | Dissatisfied | 9 (7.5) |
|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 Entrance exam score | 25 (20.8) |
| | Employment guarantee | 35 (29.2) |
| | Others' recommendation | 15 (12.5) |
| | Aptitude | 45 (37.5) |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20)

| Variables | Mean ± SD | Min~Max |
|--------------------------------|-----------|-----------|
| Stress of clinical practice | 2.97±0.47 | 2.00~4.38 |
| Clinical environment | 3.39±0.63 | 1.80~4.60 |
| Undesirable role model | 2.98±0.73 | 1.50~4.83 |
| Assignments and workload | 3.57±0.54 | 2.25~5.00 |
| Interpersonal conflict | 2.56±0.71 | 1.00~4.25 |
| Conflict with patients | 2.35±0.73 | 1.00~4.00 |
| Nursing professionalism | 3.80±0.47 | 2.67~4.89 |
|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 4.08±0.55 | 3.00~5.00 |
| Social awareness | 3.06±0.69 | 1.40~4.80 |
| Professionalism of nursing | 4.34±0.64 | 2.00~5.00 |
| Roles of nursing service | 3.77±0.66 | 2.00~5.00 |
| Originality of nursing | 3.75±0.50 | 2.83~5.00 |
| Compassion competence | 3.87±0.37 | 3.00~5.00 |
| Communication | 3.88±0.43 | 2.50~5.00 |
| Sensitivity | 4.17±0.40 | 3.40~5.00 |
| Insight | 3.57±0.54 | 2.50~5.00 |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21]의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00으로 나타나 잔차 간에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853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73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38,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 B값은 $-.27$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공감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간호전문직관이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39, p<.001$). 또한 독립변인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의 B값 $-.27$ 보다 작은 $-.12$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간호전문직관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Z=-3.3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F=27.35, p<.001$) (Table 5).

논 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96점이었다. Yeom [22]의 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나타난 3.17점보다는 낮았다. 대학 부속병원이 없는 간호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은 더 높은 임상실

〈Table 3〉 Differences in Compassion Competence Scor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Compassion competence | |
|------------------------------------|---|-----------------------|---------------------------|
| | | Mean±SD | t or F (<i>p</i>) |
| Gender | Male | 3.80±0.41 | 0.95 (.342) |
| | Female | 3.88±0.36 | |
| Grade | 3 | 3.76±0.33 | -3.55 (.001) |
| | 4 | 3.99±0.39 | |
| Religion | Yes | 3.86±0.40 | -0.19 (.851) |
| | No | 3.87±0.36 | |
|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 | 6~11 | 3.79±0.34 | 2.67 (.074) |
| | 12~17 | 3.72±0.28 | |
| | ≥18 | 3.94±0.39 | |
| Type of practice hospital | University hospital under one's | 3.87±0.37 | 0.15 (.930) [†] |
| | University hospital belonging to another university | 3.91±0.13 | |
| | General hospital | 3.82±0.44 | |
|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 Satisfied | 3.95±0.36 | 11.44 (.003) [†] |
| | Moderately satisfied | 3.78±0.37 | |
| | Dissatisfied | 3.58±0.29 | |
|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 Entrance exam score | 3.79±0.39 | 1.44 (.235) |
| | Employment guarantee | 3.80±0.33 | |
| | Others' recommendation | 3.94±0.40 | |
| | Aptitude | 3.94±0.38 | |

[†]Kruskal-Wallis test.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0)

| Variables | Stress of clinical practice | Nursing professionalism |
|-------------------------|-----------------------------|-------------------------|
| | <i>r</i> (<i>p</i>) | <i>r</i> (<i>p</i>) |
| Nursing professionalism | -.38 (<.001) | |
| Compassion competence | -.34 (<.001) | .55 (<.001) |

습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23], 본 연구 대상자의 90% 이상이 본교 소속의 대학병원에서 실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간호대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1개 병원에서 3개교 이상이 동시에 실습을 하는 경우가 45.7%이고[24]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의 직접 간호수행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교 소속의 대학병원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여전히 간호교육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22].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임상실습교육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이를 실습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80점이었다. 이는 Yeom [22]의 연구에서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나타난 점수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Han [18]의 연구에서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나타난 4.15점보다는 낮았고, Cho, Kim과 Lee [19]의 연구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나타난 3.73점보다는 높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20]. 이러한 점에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저학년을 포함하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Han [18]의 연구에 비해 낮았고, 4학년보다는 저학년인 3학년을 포함한 본 연구가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Cho, Kim과 Lee [19]의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조사하고 관련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공감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찰된 3.80점과 유사하였다[13].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공감역량은 중간이상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간호교육에서나 임상현장에서 공감역량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개발하고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공감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25]. 공감은 주로 저학년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26]. 따라서 간호교육은 학생들의 공감역량 향상을 위해 저학년에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목에서 뿐 만 아니라 교과 외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감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이 공감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를 정규 교과목 수업(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간호학 등)에서 각 교과목 특성에 적합하게 접목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감역량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학년에 비해 4학년 학생들의 공감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eo [3]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고, Kim과 Yi [4]의 연구에서 1학년 간호대학생에 비해 4학년의 공감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이 많고 환자를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실제적으로 환자를 대면하는 시간이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공감 능력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자각하고 평가하게 됨에 따라 공감능력을 낮게 지각할 수 있음을 제시한 Kim과 Yi [4]의 연구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대상자 수, 실습기관의 유형, 표집지역 등이 달라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하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대학을 포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거나 통합적 관계의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보다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공감역량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Table 5> Mediatory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ompassion Competence (N=120)

| Predictors | B | SE | β | t | p | R ² | Adjusted R ² | F | p |
|-----------------|------|-----|---------|-------|-------|----------------|-------------------------|-------|-------|
| 1. SCP → NP | -.38 | .09 | -.38 | -4.52 | <.001 | .15 | .14 | 20.42 | <.001 |
| 2. SCP → CC | -.27 | .07 | -.34 | -3.93 | <.001 | .12 | .11 | 15.44 | <.001 |
| 3. SCP, NP → CC | | | | | | .32 | .31 | 27.35 | <.001 |
| SCP → CC | -.12 | .07 | -.15 | -1.85 | .067 | | | | |
| NP → CC | .39 | .07 | .49 | 5.90 | <.001 | | | | |

Sobel test: Z=-3.37, p<.001

SCP=stress of clinical practice; NP=nursing professionalism; CC=compassion competence.

는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았다. 이는 Kim과 Yi [4]의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공감 능력이 높았던 결과와 일관되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이론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임상실습에서 적용하려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어[9] 공감역량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역량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전문직관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할수록 공감역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Lee, Yang과 Lee [13]의 연구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공감능력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Ji [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지도교수는 공감역량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을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ark과 Oh [12]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와 일관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익숙하지 않은 임상환경,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전공에 만족하기 어렵고[12],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18].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과 Oh [1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Lee와 You [10]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공감실천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단편적인 결과들에서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증진시키는 전략은 이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시받은 일만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 담당환자를 위한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8].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데 동기를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29]. 즉,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능동적으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사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켜 공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간호교육은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과 연계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간호 증재를 계획 및 시도하도록 지도하여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함으로써 공감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완전 매개 역할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이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간호연구 측면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의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증진하는데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감역량 증재방안을 제시하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3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증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공감역량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심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관련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감역량에 대한 보호요인들을 파악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추후 본 연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관련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후속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Dewar B, Nolan M. Caring about caring: developing a model to implement compassionate relationship centred care in an older people care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3;50(9):1247-1258.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3.01.008>
- Lee Y, Seomun 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urses' compassion competence. *Applied Nursing Research*. 2016;30(4):76-82. <https://doi.org/10.1016/j.apnr.2015.09.007>
- Yeo HJ. Predictors of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177-184.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77>
- Kim HJ, Yi MS.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37-245.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37>
- Ward J, Cody J, Schaal M, Hojat M. The empathy enigma: an empirical study of decline in empath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12;28(1):34-40. <https://doi.org/10.1016/j.profnurs.2011.10.007>
- Jeong HS, Lee KL.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9):6044-6052.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44>
- Hwang HM.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7;12(1):1-10. <https://doi.org/10.15715/kjhcom.2017.12.1.1>
- Lim YJ.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burn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6):461-474.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6.461>
-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14-23.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Lee HJ, You YJ. The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empathic practice among social workers: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016;36:1-21.
- Parandeh A, Khaghanizade M, Mohammadi E, Nouri JM. Factors influencing development of professional values among nursing students and instructors: a systematic review.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2015;7(2):284-293. <http://dx.doi.org/10.5539/gjhs.v7n2p284>
- Park HJ, Oh JW.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2):417-426.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17>
- Lee YJ, Yang HM, Lee KJ. Effects of career identity,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20):1-1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0.1>
- Beck D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1;30(3):127-133.
-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 Yoo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35(6):1091-1100. <https://doi.org.kims.kmu.ac.kr/10.4040/jkan.2005.35.6.1091>
-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1-79.
- Han SH.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12):353-363. <https://dx.doi.org/10.21742/AJMAHS.2018.12.85>
- Cho YG, Kim HG, Lee JW.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nursing profession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1):1355-1368.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1355>
- Chung CH, Ko JO. The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and life orienta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19):539-558.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9.539>
-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Yeom EY.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4):320-330.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320>
- Yang SY.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9):286-29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9.286>
- Song JH, Kim MW.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251-264.

-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51>
25. Durkina M, Gurbutt R, Carson J. Qualities, teaching, and measurement of compassion in nursing: a systematic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2018;63:50-58. <https://doi.org/10.1016/j.nedt.2018.01.025>
 26. Son H, Kim HS, Koh M, Yu SJ.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of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424-432.
 27. Ji EJ.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3):1685-1697.
 28. Jeong HY, Kim SY.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involvemen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5):531-539.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5.531>
 29. Lee SH, Kim DH, Chae SU.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9;42:102647. <https://doi.org/10.1016/j.nepr.2019.102647>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ompass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Jun, Won Hee¹⁾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ompass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120 nursing students recruit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elf-reporting scales of stress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mpassion competence. Baron and Kenny's regression method and the Sobel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ompassion competence. **Results:** The mean score for compassion competence was above average. Of the compassion competence domains, sensitivity and insights had the highest and lowest scores,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compassion competence scores according to their grade and level of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Compassion competence correlated negatively with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whereas it correlated positively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In add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exerted ful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ompassion competenc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enha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could help promote compass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Keywords: Compassion; Competence; Practice;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 Won Hee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egu 42601, Korea

Tel: 82-53-258-7669, Fax: 82-53-258-7616, E-mail: jwh9178@hanmail.net